

구원의 문

작성일: 2011. 11. 3. 목

작성자: 강상문

[형제와 생명 때문에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을 두고 밤잠을 설치며 과거에 마음으로 많은 생명들을 미워하고, 나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함부로 판단하는 생각, 마음이 되살아나면서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기도를 깊이 했을 때, 과거 자리싸움한 마가복음 10장의 말씀과 이 시대 구원의 문과 성찬식에 대해서 주신 주님의 말씀을 다시 정리할 때 받은 말씀입니다.]

* 예수님 말씀 *

구약 때는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문이 열렸듯이
신약 때는 나 예수의 몸을 통해서 구원의 문이 열렸다.
성약 때도 나의 몸된 자를 통해서 구원의 문이 열린다.

신약 때 예수라는 나 자신의 욕을 받아들이고
그 말씀대로 살면서 행한 자는
성자의 본체와 하나가 되는 신약급 역사를 이루었다.

이와 같이 성약 때도 마찬가지다.
내가 보낸 나의 욕 된 자를 받아들이고
그 행함을 통해서 나 예수를 느끼고
그 말씀을 통해서 행함으로 변화된 영만
나의 영의 본체
곧 신랑으로 오는 성자와 하나가 될 수가 있고
마지막 천사장 나팔 소리 때 그 영도 휴거될 수 있다.
이것이 구원의 법칙이다.
욕 먼저다.

욕신 부활이 무엇인지 선생 통해 30년 간 가르쳤다.
이젠 때가 되어 영적 휴거에 대해 가르쳤다.
구약도 신약도 성약도
내 아버지의 역사하시는 법칙은 동일하다.
그것을 모르니 영으로 온 성자의 본체와
그 욕으로 쓰이는 사명자를 혼동한다.

나 예수가 창조주와 같이
성자로서 창조하고 행함을 아는 자가 몇이나 있느냐.
과거 2000년 전 예수로만 알면
영의 본체를 잘 모른다.

유대인들도
나를 본 것이 곧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
이야기해 주었어도
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
욕으로만 보니 알 수가 없었던 것이다.

때가 되어서 영으로 욕으로
쪼개서 볼 수 있게 가르친다.
휴거의 비밀도, 방법도, 순서도 가르친다.
이 말씀을 안 듣고 모르고 살면
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못 맞는 것이다.

성찬식은 깨끗함을 의미한다.
마지막 때 나의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고
나의 피와 살을 먹으라고 했던 말씀은
곧 깨끗한 나의 사상과 정신과 마음을 받으라는 것이다.
곧 나와 일체 되어서 나의 욕이 되어 달라는 것이다.

이 시대 성찬식을
때가 되어 섭리사에 한 것은,
선생의 깨끗함을 알고 그 심정으로 그 사랑으로
선생처럼 나의 몸이 되어 달라는 것이다.
이 시대의 깨끗함을 알아야 한다.
신부의 깨끗함이다.
나 예수 곧 성자는 신부된 자와 같이 혼인식을 한다.
깨끗한 구름만 나의 재림을 맞는 것이다.
구원의 문, 시대 신부의 문은 하나다.
그 문을 통해서 깨끗하게 된 신부만
성찬식의 의미를 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.

형제 사랑과 원수 사랑으로
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긴 자가 누구이냐.
마음과 뜻 목숨 다해
하늘 사랑, 땅 사랑
이 말씀을 이룬 자가 누구이냐.

이 시대 인생들은 내가 보낸
보낸 자를 사랑하지 않으므로
모두 다 말씀 심판을 받았다.

과거 2000년 전에도
나 예수의 몸을 받아들이지 않고
형제 사랑도 못한 자들은 모두 심판받았다.
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
대속물로 나의 몸을 내어 놓고
다시 만민 구원의 길을 열어 주는
그 방법밖에 없었다.

이 시대도 그러하다.
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면
또 십자가의 의미를 희석시킨다.
진정한 사랑은, 참 사랑은
나 예수를 성자로서 맞이하는 것이다.

나의 몸을 통해서 신랑으로 맞이하는 것이다.
영의 본체로 맞이하는 것이다.
곧 최초로 맞이한 선생의 입장에서 나를 맞이해야
내 사랑이 되는 것이다.

성찬식은 나의 몸이 되는 것인데
나의 몸 된 자의 사상, 정신, 행함, 심정, 사랑급을
알아야
본체를 맞이할 수 있다.
곧 제2의 선생이 되라는 것이다.

성찬식 때 그저 구원받으려고 오면 안 된다.
내가 네 대신 십자가의 길을 갔으니
그 의미를, 왜 그랬는지 정확하게 알고 맞이하여야.
그것은 한 생명도 지옥 보내지 않으려 하는
삼위의 사랑이다.
희생적 사랑이다.
아픈 사랑이다.
순고한 사랑이다.
사탄을 무릎 꿇린 사랑이다.

사탄은 자신의 자리를 뺏길까 봐
용졸한 사랑으로 성삼위를 대했다.
결국 완전하지 못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뜨렸
다.
그가 선생처럼 그러한 인생길을 가고
그러한 사랑을 했으면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다.

내 사랑아, 하나님의 사랑은
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변하지 않는다.

단지 인생들이 변질된다.
환경 때문에 자리 때문에 변질된다.

선생은 변질되지 않았다.
더욱더 온전하게 완전하게 변화되었다.
성찬식은 깨끗한 신부로서
진실한 사랑으로 변질되지 말라고 준 나의 선물이다.

사랑하니 나의 육을 대속물로 내어 주고
영원한 사랑을 가르쳐 주는
나 예수 성자, 신랑이다.